

이것이 염불선이다 주경 지음 | 무한출판사 펴냄 | 1만5000원

마음속에서 부처 찾아야 해

사람은 누구나 간절히 원하고 무언가 이루기를 바란다. 부모들은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며...

또한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화를 내고 욕심내며 또 허망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마음을 묶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집착이 되며...

이것이 염불선이다의 저자 주경 스님(성원사 주지)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잠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가지 독(三毒) 즉, 업(業)의 아지랑이가 생긴다고 한다.

주경 스님은 염불선(念佛禪)을 본격적으로 보급한 청화 스님(1924-2003)의 뜻으로 이 책을 집

필했다. 염불선이란 모든 존재가 부처 아닌 것이 없으니, 부처가 먼 곳에 따로 있다고 여기지 말고 마음 안에서 부처를 찾아야 한다는 관점 아래 염불과 선을 함께 닦는 선정불이(禪淨不二)의 수행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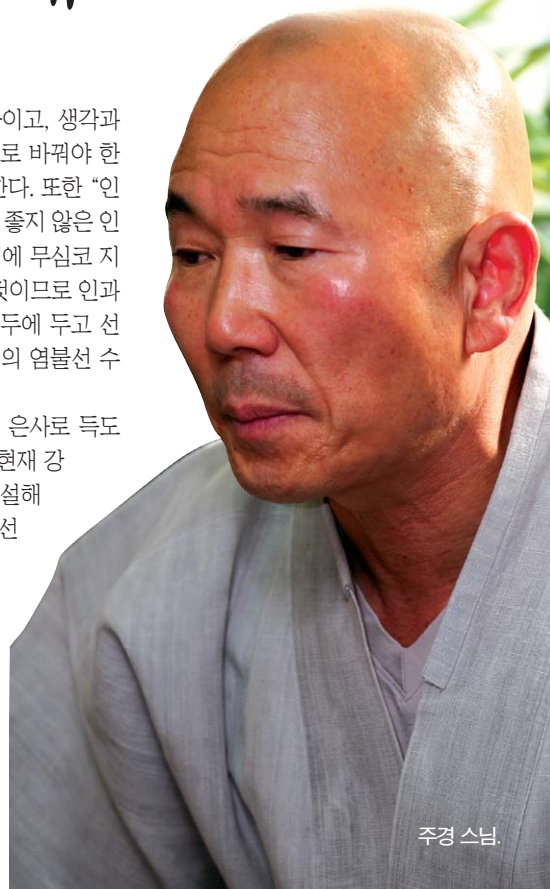
탐진치에 물든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한 책인 <이것이 염불선이다>는 믿음(信)·알(解)·실천수행(行)·깨달음(證)의 4부 및 청화 큰스님의 법문 등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님은 우리가 지은 업을 믿음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믿음이란 상대적인 것을 초월한 절대공정으로 부정이나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스님은 책에서 "알든 모르든 지은 업에 대한 과보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찾아든다. 곧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우리는 업에 맞는 국토와 사회와 가정에 태어나고, 일생 동안 갖가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참회를 통해 지난 업을 녹이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고 평화로운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 인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인과를 믿어 참회하지 않으면, 속세의 좋지 않은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급성에 무심코 지은 많은 업들이 내생에 고통이 될 것이므로 인과의 법칙을 믿고, 항상 그 과보를 염두에 두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며 일상생활에서의 염불선 수행을 강조했다.

주경 스님은 태안사 청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30여 년간 참선 수행을 했다. 현재 강릉 성원사에서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 운영 중이고 각국에서 사미 스님을 선발해 한국 불교의 수행법과 문화를 직접 지도하며 국제포교사로 양성하는 등 불법 홍보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강남 대치동에 정중선원을 개원해 불자들에게 염불선을 지도하고 있다.

이나는 기자
bohyung@buddhapia.com



주경 스님

선불교 유적지에서 만난 달마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김성중외 지음 | 조계종 출판사 펴냄 9800원

십 수년 전부터 인도를 찾는 한국인들의 숫자가 급속히 늘었다. '명상'이나 '느림'을 찾아 떠난 이들도 많았지만 꽤 많은 숫자가 부처님이 탄생하고 열반한 유적지를 찾던 스님과 신자들이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오히려 중국을 방문하는 스님과 신도들의 숫자가 부쩍 늘었다. 3개월 동안 선방에 앉아 참선에 들었던 스님들도 만행을 할 때가 되면 '중국'을 꼽는다. 왜 중국인가? 이런 '유행'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선(禪)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자상승(師資相承)이라는 독특한 전통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한국불교의 법맥이 중국에 바로 잇닿아 있기 때문이다.

선(禪)은 2500여 년 전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유래해 마하 가섭에게 이어져 제28대 달마 선사에게 이르러 동쪽으로 전해졌다. 석가모니 이래의 인도불교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오늘날 전해지는 선불교는 중국 선종이 이룩한 사상적 성과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는 2007·2008년 봄,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선어록을 공부하던 70여 명의 스님, 신도들이 중국선종사찰 순례를 다녀올 때 동행했던 일간지 종교 기자들이 쓴 글을 모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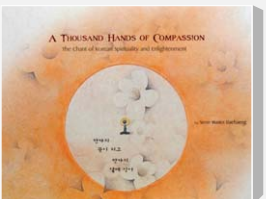
기자들은 일간지의 '종교' 지면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자답게 종교와 불교에 대한 깊은 성찰과 안목을 가지고 독자들과 중국 선불교의 세계로 안내했다. 달마에서 혜능으로 이어진 선불교의 초기시대 그리고 대혜종교 선사의 천동사부터 고봉원묘 선사의 천묘산에 선불교의 꽃을 피운 간화선의 세계까지 그 역사를 지면마다 풀어냈다. 그리고 선사들이 제시한 화두를 다시 세상에 펼쳐놓고 있다.

저자들은 한국의 사찰보다 덩치가 크고 화려한 중국 사찰의 모습에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소림사에서 이조암으로 오르는 리프트를 보면서 성스러운 옛 선사의 그림자를 찾기가 쉽지 않음을 느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선사들의 행적과 선문답 사이를 오가며 중국에 선불교가 뿌리내리게 된 이유와 한국에 전해지게 되는 계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이나는 기자

간결한 문체로 경전 본래 뜻 살려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대행 스님 한글번역 · 한미음국제문화원 영어번역 | 임 효 그림 한미음출판사 펴냄 | 2만원

사찰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의식에서 기본적으로 독경되는 경전은 <천수경>이다.

그런데 왜 <천수경>은 다른 경전들처럼 '어 시아문'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자칫 <천수경>을 위경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천수경>은 대장경의 밀교부분에 있는 다라니와 진언, 계송 등을 독송용으로 편집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형태의 경전이다. 학자들은 오늘날의 <천수경>이 조선시대 서산 스님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그 이전에도 <천수경>에 편집 삽입된 다라니와 진언 계송 등이 애송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듯 전해 내려오며 애송된 경전인 <천수경>은 의외로 한글로 번역되거나 풀이된 경우가 많지 않다. 경전 자체가 다라니와 진언을 중심으로 편집돼 있어, 풀이 보다는 독송 자체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천수경>의 내용을 한글로 풀어 그 가르침을 생활수행으로 접목시키는 작업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한미음선원 선원장 대행 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경'이 한글과 영문을 함께 담은 책으로 출간됐다. 책의 우리말 제목은 <만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이며 영문 제목은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대행 스님의 <천수경> 풀이는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읽을 수 있을 만큼 간결하고 유려하다.

경전의 본래 뜻을 쉽고 간결한 문체로 충실히 살려낸 것이다. 한국 화가 임효씨의 삽화도 선적 풍미를 듬뿍 담고 있어 눈을 시원하게 한다. 이 책은 이미 지난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 페어에서 해외 출판인들로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았으며 독일어판 출간 상담도 진행되고 있다.

임연태 기자

'죽음'의 비밀을 파헤친 불교 최초 경전



티베트 사자의 서 장홍스 지음 정순용 옮김 | 김영사 펴냄 | 1만8000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티베트 사자의 서>는 '죽음'의 모든 비밀을 파헤친 티베트 불교 최고의 경전이다.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번역, 출간됐지만 끝까지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지 모른다. 이번에 나온 책은 기존에 나왔던 <티베트 사자의 서>들의 단점을 보완해 새롭게 풀어쓴 책

이다. 이 책은 대만의 티베트 불교 전문가 장홍스(張宏實)가 이를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다. 또한 '그림으로 풀어내는(圖解)' 방식으로, 도표와 그림 및 문자의 방식을 활용해 불법과 관련된 지식이나 어휘를 사용, 마인드맵(mind map) 방식을 사용해 죽음과 환생의 계통도를 그리고, 수많은 신의 방위, 피부색, 나타나는 시기 등을 도표로 정리했다. 문자 서술이 아닌 시각 자료를 사용해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죽음의 과정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진정한 '사망지도'다.

이나는 기자

이땅을 다니며 만난 토박이들의 대한 기록



뒤라, 내한테서 찔레꽃 냄새가 난다고 이지우 지음 | 호미 펴냄 | 1만원

한국의 삶과 정서, 문화를 섬세하게 돌아보는 관찰자이자 기록자인 이지우가 이 땅을 살아가고 다니면서 만난 토박이들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엮어 냈다. <뒤라, 내한테서 찔레꽃 냄새가 난다고>는 일백 년 한 평생을 성주 수륜면 작은동리의 깊은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신 문상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문웅은 흔히 말하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간 전형적인 산골 촌부이

삶의 전부이며 고집이기도 했다. 저자는 "문웅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 한 생을 일구어 온 것을 짧게나마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큰 경험이었다"며 "그의 생각은 불가(佛家)의 선사(禪師)들 보다 오히려 간결했으며 그의 말은 함축적이었다. 진리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식이 없다고 해서 진리의 근원에 다다르지 못할 법도 없음을 문웅을 만나면서 배웠다"고 말한다.

이나는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이름다운 마무리	법정	마음의 숲
2	연진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성철스님 회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4	스님도 군에 가나요	지장	클리어마인드
5	이발로기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6	행복한 사람들	김천	하얀연꽃
7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8	범구경 담미파다	전재성 역	한국해탈사상연구원
9	물앞의 갯나무	정찬주	미들하우스
10	천지는 꿈꾸는 집이아니	정대	초담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수제화 고무신코 만행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문의 및 주문전화 : 02) 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주민) 합장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통합검색 | 만행화 | 검색

인터넷쇼핑을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방한용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특무명



•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 검정

3-1편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사계절단화



풍신통 99%

지압식 깔창



지압깔창 풍신통 99% 발명특허원41435 • 가격 : 15,000원